북핵 6자회담 베이징서 개막

8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북핵 6자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비핵화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핵 검증을 위한 의정서 마련을 시도한다. /연합뉴스

검증 의정서 '시료채취' 명문화 쟁점

초안 마련…"비핵화 2단계 완료 즉시 검증 착수" 합의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문제를 집중 협의할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8일 오후 4시(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비핵화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핵 검증을 위한 의정서 마련을 시도한다.

첫날 회의는 특별한 개막식이 없이 각국 대표단이 회담장에 모두 도착하면서 곧바로 시작됐다. 하지만 중국은 이날 첫날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을 수렴, 정리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둘째날(9일) 오전 검증의정서 초안을 마련, 각국에 회람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전날(7일)부터 이날까지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등 각국 대표들과 개별 양자회동을 벌여 각국의 견해를 취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제시할 검증의정서 초안은 검증 주체와 방법, 착수 시기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지난 7월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긴 여정이 될 검증활동의 기본원칙을 의정서에 담을 것"이라면서 "방법에 있어서 시료채취, 주체에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 등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최종적인 의정서 초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6자회담 합의에 따르면 검증주체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필요시 IAEA가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으며 방법은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미·일 등은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합의문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시료채취는 추후 핵포기 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시료채취를 명문화하지는 않되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에 합의하는 방안 ▲북한이 시료채취 명문화를 수용하고 문서형식은 비공개로 하는 방안 ▲검증단계를 세분화해 각 단계별 이행의정서를 따로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절충안을 북측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비핵화 2단계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에 6개국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검증 착수시기는 가장 이견이 적은 부분"이라면서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북 에너지 지원과 불능화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만큼 그 직후를 상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검증의정서 외에도 지체되고 있는 비핵화 2단계(핵시설 불능화 및 100만t 상당의 대북 중유지원)의 완료 시점을 공식 재조정하고 비핵화 3단계에 대한 예비적 의견교환을 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메커니즘도 논의한다.

회담 개막에 앞서 우리측은 이날 오전 중국 및 북한과 각각 양자회동하고 검증의정서를 비롯한 회담 의제에 대해 사전 협의했다.

조윤수 외교부 부대변인은 남북 회동에 대해 "우리측은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가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설명했다"면서 "북한은 이에 대해 경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 내년 10월까지 식량 84만t 부족"

유엔식량기구 전망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도정 전 기준 약 421만t에 달하며 수입분을 감안하더라도 식량회계연도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약 83만6천t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10월9~24일 북한에서 진행한 곡물 생산량 실사를 근거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 8일 FAO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WFP와 FAO는 또 북한 주민의 약 40%인 870만명이 긴급한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어린이나 노인 등이라고 밝혔다.

FAO측은 "북한은 올해 곡물 성장기에 날씨가 좋았음에도 불구, 심각한 비료 및 연료 부족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몇개월간 북한은 심각한 식량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돈나 前 남편에 이혼 위자료 697억원 줘

팝스타 마돈나(50)가 전 남편인 영화감독 가이 리치(40)에게 이혼 위자료로 3천200만파운드(약 697억원)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마돈나는 현금 1천200만파운드와 영국 윌트셔의 2천만파운드짜리 별장 애쉬콤 하우스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리치 감독은 또 300만파운드 정도 가치가 나가는 자신의 술집 펀치볼 펍은 그대로 갖기로 했다.

지난달 리치와 이혼한 마돈나는 법정에서 공개된 성명에서 "계속되는 리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리치 감독은 7년 반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번 1억2천만파운드에 달하는 재산 중 절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美경제 단기부양책 필요"

"자동차 업체 완전한 구조조정 거쳐야 지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실업률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등을 감안할 때 침체는 매우 커다란 문제이며,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점차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오전 미 NBC방송의 간판 대담프로그램인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당장 경제에 피를 공급해 '환자(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며, 연방적자 문제는 후순위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기 미 행정부는 "사상 최대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그런 지출은 긴급처방인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일종의 할부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도위기에 처한 미 자동차 업계 회생문제와 관련, "자동차 업체들이 의미있는 구조조정을 거친다는 전제가 충족되면 정부는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자동차 산업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노사, 주주, 투자가 등을 참여한 가운데 완전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고효율 자동차' 개발을 제시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자동차 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중추이며, 여러 주(州)에 걸쳐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업계 살리기에 나설 뜻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태국 아비싯 민주당 총재 총리 후보 추대

의회에 선출 임시회 요구…탁신계 정당은 총리 후보 지명도 못해

태국의 유일 야당인 민주당은 8일 아비싯 웨짜지와(44) 총재를 차기 총리 후보로 추대하는 한편 하원에 총리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집권 정당연합의 중심당이었던 탁신 치나왓 계열의 정당은 총리 후보조차 정하지 못한 채 표류, 7년만에 정권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수텝 타욱수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차기총리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차이 칫촙 하원 의장에게 제출했다.

역대 최연소 총리가 유력시되는 아비싯 총재는 "민주당은 국정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탁신계 정당으로 국민의힘(PPP) 후신인 '푸에아 타이'는 전날 당대표로 용윳 위차이딧을 선임하는 등 당 간부 인선을 마치고 재집권을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차 프롬녹을 총리 후보로 추대했으나 본인이 고사하는 등 자당의 총리 후보조차 내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원 총 480석 가운데 공석을 제외한 현역의원 438명 중 자당 의원 166명을 포함한 260명 정도가 아비싯 총재를 차기 총리로 지지하고 있어 집권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PPP의 중도파를 흡수하고 푸에아판딘, 찻타이, 마치마티파타야, 루암자이 타이찻 파타나 등 4개 군소정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다.

민주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되면 170석 규모의 '푸에아 타이'와 프라차랏(5석) 등 2개당은 야권으로 남게 된다. /연합뉴스

아소 日총리 지지율 급락

10%대 추락 위기…사실상 식물정권 몰락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면서 사실상 '식물 정권' 으로 몰락했다.

8일 일본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소 총리의 지지율은 20~22%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권 유지가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소 총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0.9%로 이 신문이 지난달 초 실시한 조사 결과인 40.5%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7%로 한달 전에 비해 25% 포인트나 증가했다.

또 아소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 가운데 누가 총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소 총리가 29%, 오자와 대표가 36%로 이 신문사 여론조사상 처음으로 오자와 총리가 앞섰다.

정당별 지지율도 여당인 자민당이 27.2%인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28.2%로 야당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40%로 자민당(24%)을 크게 앞섰다.

요미우리는 "국민적 인기가 높다는 이유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탄생한 아소 정권이지만 단 2개월만에 '쇄신 효과'가 사라졌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자민당 내에서는 총리 교체 요구나 신당 창당 등의 움직임이 표면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법원경매 친절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궁동	48/233	8억3500만	5억8500만	사무실,병원,학원적합
오치동	50/52	1억6100만	1억1300	창고사무실,사선초인근
금호동	104/234	7억3100만	4억960만	학원,사무실,부엌1,차한근
운암동	146/400	12억7000만	7억1000만	상가,사무실,운암고가인근
용봉동	137/223	6억1000만	3억5000만	식당,사무실
양산동	362/993	41억4000만	26억5000만	금융,병원,학원,주차장대
무산동	188/193	10억8000만	5억9000만	상업지역1,2층건물
누문동	40/34	4억3000만	2억4000만	수형초교근내,테크타운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암동	41.4/58.6	1억4900만	8400만	현대1 차인근,2층
소촌동	57/53	9500만	6620만	송정중앙초인근,2층
백운동	114/28	2억8700만	2억	코아루맨션근,단층
신창동	67.5/51	2억3150만	1억6200만	복충형,전원주택
화정동	134/83	6억5500만	2억9400만	화정역인근,2층
진월동	39.6/46	8180만	5730만	부띠크인근
농성동	38/26	1억1970만	4300만	건강회관,복층형
계림동	95/66	1억8740만	9370만	단층,계림3구역
지산동	83/42	2억4740만	1억7320만	단층,도로변
영광영산면	150/53	5270만	2400만	성상마을내
화순동면	153/50	1억6300만	9120만	전원주택,2층
장성삼서면	200/44	8840만	6200만	단층,도로접
담양고서면	65.6/32.5	6100만	4270만	잣정마을내,단층

▶아파트

소재지	명칭	층	면적	감정가	최저가
내방동	해태	2층	32	1억1000만	7700만
쌍촌동	모아계일	1층	32	1억1600만	7424만
나주	송월주공	6층	20	4200만	2940만
빙림동	모아	8층	29	6700만	4690만
치평동	라인대주	3층	25	9000만	6300만
문흥동	제일파크	7층	20	5100만	3570만
화정동	아문한세상	16층	67	4억3000만	3억4300만
운남동	주공5단지	4층	32	9000만	6300만
금호동	일신	3층	32	1억5000만	7350만
치평동	중흥	6층	32	1억3800만	9660만

▶근린상가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계림동	32.6	4억6300만	2억750만	금호계림주상복합1층,도로변
화순읍	36	1억5000만	1억500만	부영6차도로변/2층
풍암동	23	9000만	6300만	선일초교인근/8층
풍암동	15.8	7000만	3136만	동부센트레빌상가/2층
매월동	11	6200만	2780만	산업용재유통센터/1층
치평동	46.8	3억5500만	1억830만	중흥에스클래스상가/4층
월계동	119.7	11억2000만	4억	컨벤션/1층

▶다세대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풍향동	57.1	1억6000만	1억1200만	대주빌리,1층
옥과면	19.7	8400만	5880만	아이비빌,3층
운암동	22.7	9500만	5320만	참존빌리, 2층
화정동	15.3	6500만	4550만	염주주공, 2층
신가동	25.6	1억3500만	7560만	그린빌리, 4층
운림동	44.9	2억	1억4000만	무등스위트빌리 2층
빙림동	14.8	4000만	2800만	송림빌선선,3층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동	답	907	6600만	4620만	연계마을인근
나주남평	답	1210	4000만	2800만	수문마을인근
영광읍	전	619	1520만	1060만	삼호마을인근
담양월산면	임야	2283	6870만	4810만	흥암마을인근
이장동	대지	45.4	2700만	1890만	황산마을인근
영암군서면	답	686	1440만	1000만	구산마을인근
봉황면	답	907	5100만	3570만	답안마을인근
본덕동	전	1443	1억980만	7680만	미곡마을인근
농성동	대지	96.8	3억8400만	2억6880만	원룸,사무실부지적합
장성읍	답	713	3355만	1879만	덕진촌마을인근

▶숙박시설 (모텔)/웨딩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신가동	60/114	3억1300만	2억1200만	13가구/3층건물
학동	110/259	8억1820만	2억9330만	5층,모텔
담양금성면	726/379	7억6500만	3억4300만	4층,모텔
나주남평읍	832/626	15억4100만	5억5220만	4층,모텔
나주송월동	64/300	5억8100만	2억8100만	5층,모텔

▶오피스텔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치평동	11.6	6000만	4480만	구월드림빌,4층
화정동	12.2	5500만	2464만	금호월드,10층
치평동	54	4억2000만	2억9400만	로잔타운피크,4층
치평동	24	1억5006만	8400만	그랜드오피스텔,9층

▶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담양월산면	1444/890	10억3500만	7억2500만	월산초교인근
문수동	634/185	11억5000만	6억4500만	대일유압인근,대로변접함
화순동면	1248/641	7억770만	3억9630만	동전농공단지내
안청동	1000/635	15억	6억5000만	하남공단내
용동	294/206	4억4030만	3억820만	평동공단내

월산동 대118/건295 매매가4억7000만 교통편리,대로변 병원,요양원적합
월계동 전용면적 119.7 감정가11억2000만 최저가4억 1층, 상가, 대로변
오차동 대152/건588 감정가16억6000만 최저가9억3000만 5층상가/대로변
신가동 대60/건114 감정가3억300만 최저가2억1200만 13가구/원룸
학동 대194/건320 감정가11억 최저가8억8280만 식당,모텔
안청동 대1000/건635 감정가15억2000만 최저가8억5000만 공장/하남공단내